‘사교육 바람’ 국어·수학으로 바꿔탄다

수능 영어,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전환

실용 영어 능력 키운다지만 실력 저하 우려

대학들 영어논술·면접 비중 확대 가능성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9등급의 상대평가가 아닌 9등급 또는 4~5등급의 절대평가로 바뀐다.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 위해 무의미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영어영역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학·과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학습부담 경감·실질 영어능력 향상=정부가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으로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학습부담 경감과 실제 영어능력 향상이다.

서열을 중시한 상대평가 방식에서 학생들이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벌이며 ‘과잉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는 수학·국어보다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과목으로 꼽힌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약 18조6000억원)에서 영어교육이 약 6조3000억원(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학교에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말하기·쓰기·듣기 등의 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어공부 안 해도 되는 거냐”=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영어의 변별력 상실은 수학·국어·탐구영역 등의 사교육 증가를 유도하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1점이 원하는 대학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다른 과목의 사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은 수능 영어가 아닌 별도의 영어면접·영어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등급제와 4~5등급제의 차이는=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영어영역의 등급방식을 9개 또는 4~5개로 하는 것 가운데 결정할 계획이다. 9등급제와 4~5등급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9등급제는 100점 만점에 90, 80, 70, 60점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미리 설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고정분할방식과 연계될 공산이 크다. 학생이 자신의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4~5등급제는 시험결과를 놓고 등급을 구분하는 준거설정방식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분할점수가 학생들의 분포,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면서 다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변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9등급제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대평가의 도입 취지에는 4~5등급제가 더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중에 4~5등급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며 “학생들의 실력을 의미 있게 구분하는 등급은 4~5개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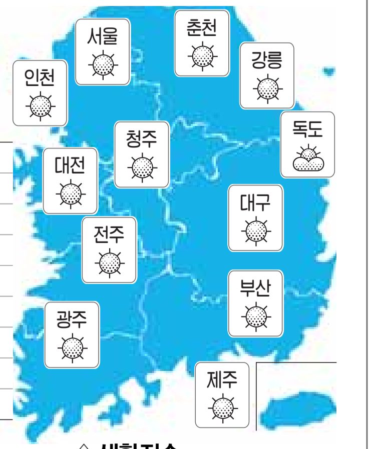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9	달뜸	10:37
해짐	17:27	달짐	22:18

스케이트장 가볼까?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2/6	보 성	맑음	-4/5
목 포	맑음	-2/5	순 천	맑음	-1/6
여 수	맑음	-1/6	영 광	맑음	-4/4
나 주	맑음	-4/6	진 도	맑음	-1/6
완 도	맑음	-4/7	전 주	맑음	-5/5
구 례	맑음	-4/5	군 산	맑음	-4/3
강 진	맑음	-2/7	남 원	맑음	-5/5
해 남	맑음	-2/7	흑산도	맑음	3/5
장 성	맑음	-4/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0:06	04:56
	22:43	17:34
여수	12:13	05:35
	00:00	18:21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90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1/1(목)	2(금)
-2/7	-2/6	-1/7	-1/5	-3/2	-4/1	-4/0

아기예수 탄생 축하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북구 일곡중앙교회 앞길에서 열린 ‘제16회 성탄절 거리축전 함께하는 일곡동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료기기 부작용 3년새 30배 급증

식약처, 작년 4130건 보고

‘인공유방’ 관련 가장 많아

의료기기 부작용과 관련한 보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0년 137건에서 2011년 717건, 2012년 2397건, 2013년 4130건으로 3년새 약 30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도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4285건의 부작용이 새로 보고됐다.

의료기기법 31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한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에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는 등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면서 보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인공유방’과 관련한 부작용이 매년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올해의 경우 주사기, 수액세트,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 등이 뒤를 이었다.

인공유방은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가운데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기기에서 발생한 부작용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결함 보고 2699건 중 95.1%인 256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65% 가량인 1659건이 ‘파열’ 부작용이었으며, 이밖에 주름(46건), 장액종(12건), 모양변형(11건), 감염(8건), 염증(7건) 등도 보고됐다./연합뉴스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20%에도 못 미치는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국제기구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냈다.

안전띠 경고장치를 반드시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는 내년 3월 회의 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5일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제기준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본(98%), 독일(97%)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못 미치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 안팎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뒷좌석까지 안전띠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4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